

페미니즘과 질적간호연구

이 명 선¹⁾ · 이 봉 숙²⁾

서 론

성 인지적 차원에서 환자의 돌봄에 대해 숙고하여 볼 때 여성편향적 흐름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전문적인 간호제공의 주체가 되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병든 가족원을 돌보는 주체 역시 주로 어머니, 며느리, 딸 등으로 대부분이 여성이다. 이에 대해 많은 연구 사례들이 보고 되어지고 있으며, 특히 여성가족원을 중심으로 한 재가 만성질환자의 돌봄 사례들은 이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Chafetz & Barnes, 1989; Kim, 1998; Milliken, 2001).

이러한 현상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은 돌봄이 남성 우위 사회에서 여성의 의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억압의 원천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Gilligan, 1993; Guberman, 1988). 따라서 성 불평등을 해소하고 여성을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간호와 돌봄 현상을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Park, 1995). 특히 페미니스트 접근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뿌리 깊이 구조화되어있는 성 불평등적인 신념과 가치체계, 그리고 모순된 사회구조와 체제적 요소들이 어떻게 여성을 억압하고 있는지 밝히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는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그리고 주변화 되어 온 여성의 관점에서, 지배구조를 성찰적, 그리고 비판적으로 재조명” Lee(2000, p. 5-6)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성주의적 접근의 필요성은 비단 돌봄제공자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돌봄 수혜자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

닌다고 할 수 있다. 즉 돌봄 대상자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점이다. Sheyett(1990)에 의하면 여성은 타인의 돌봄을 도덕적인 필수로 간주하고 있으나, 자신에 대한 돌봄은 자기 탐닉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경험을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탐구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Lee(1996)도 개인이나 가족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문화가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페미니스트 관점을 이용하여 탐구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이는 결국 여성들이 자신의 몸과 건강상태에 대한 자각과 의식수준을 높이고 자신의 몸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체는 간호사로 하여금 여성의 경험을 가치화하고 여성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지지함으로써 여성의 해방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궁극적으로 페미니스트 접근을 이용한 간호 연구는 새로운 시각의 간호지식체 개발에 박차를 가할 뿐 아니라 간호실무 및 정책 전반의 발전과 변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 사료된다. 이와 같이 페미니즘을 간호학에 접목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우리나라에서도 Park(1995)이나 Lee(1996) 등의 간호학자들에 의해 1990년대 중반부터 제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계에서는 아직도 페미니스트 견해에서 간호현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미약하다. 이에 대한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간호전문가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들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페미니즘

주요어 : 페미니즘, 질적연구, 여성의 권리

1)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연구원

2)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박사과정생,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연구원

투고일: 2004년 2월 19일 심사완료일: 2004년 4월 23일

을 어떻게 연구에 혹은 연구방법에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페미니즘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계적인 페미니즘의 흐름과 우리나라 페미니즘의 현황, 그리고 페미니즘 철학, 인식론, 그리고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다루고자 한다. 둘째, 페미니스트 관점을 통해 여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간호와 간호연구를 조명해 보고 그 의미를 짚어봄과 동시에 페미니스트 관점과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질적연구방법, 특히 근거이론과 문화기술지 등을 접목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과 제한점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페미니즘

페미니즘의 흐름

페미니즘이란 여성에 대한 지배 혹은 억압기제가 사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지배관계가 정치적 행동을 통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보는 여성 해방주의적 관점을 말한다(Kim, 1995). 이러한 페미니즘은 비록 17세기 경부터 일기 시작하였으나, 18세기 이후 세계적인 보편적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페미니즘이 일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 Jeon(1998)은 계몽주의 철학과 자유주의의 발전, 그리고 산업화를 그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사회적 불평등은 기존 남성중심의 인식 틀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 대안으로 페미니즘이란 새로운 틀이 형성 되었다고 보고 있다(Lee, 2000). 이러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일기 시작한 페미니즘은 제1 페미니즘 운동과 제2 페미니즘 운동, 그리고 제3 페미니즘 운동으로 크게 나누어 설명되고 있다(Kim, 2003; Jeun, 1998).

제1 페미니즘은 19세기 이후 제1차 세계대전 무렵까지 전개된 여성운동으로 여성의 평등권을 찾기 위한 운동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에서는 1909년부터 1921년 사이 여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게 되었다(Kim, 1998). 제2 페미니즘 운동은 1960년대에 일기 시작하였으며 여성의 투표권 쟁취 및 공직 진출 등의 법과 제도적 장치를 통한 평등권 획득은 물론, 실질적인 평등권 구현을 위한 가부장적 사회제도 그리고 성과 권력과의 관계에 대한 규명을 통한 여성의 의식화를 강조하였다(Kim, 2003). 마지막으로 제3 페미니즘 운동은 백인 중산층 여성이 주축이 되어 진행된 주류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다양한 계층과 인종의 다양한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198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는 포스트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

고 있다(Kim, 2003; Richardson, 1998).

한편, 한국에서는 비록 페미니즘이 서구적인 사고이기는 하나 평등성 추구라는 보편적 차원에서 1960년대를 기점으로 조명되어지기 시작하였다. 페미니즘은 주로 학계를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불평등한 가족관계(결혼, 친족역할, 가치관, 가족의식 등) 및 사회적 관계의 불평등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는 이화여자대학교에 여성학 강좌의 개설을 시발점으로 학문영역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Park, 2002). 그러나 여성을 위한 정책적 측면의 시도는 80년대 초 가족법개정 및 출산억제를 내용으로 한 정부의 정책을 시작으로 86년 모자보건법 개정에 의하여 여성문제가 정책 담론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어 여성차별 금지 및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남녀 고용평등법에 관한 입안 제정이 1987년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 평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는 드디어 여성부가 신설됨으로써 좀더 체계적인 여성정책의 틀이 잡혀지게 되었다(Kim, 2002). 이로서 여성취업, 성폭력, 가족폭력, 그리고 윤락행위 방지 등 다양한 여성 이슈들에 관한 사안들이 법률로 제정되고 사회적 실천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페미니즘 철학

페미니스트 철학은 여성억압의 본질과 이 억압적 상황을 초래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 그리고 성적 불평등 구조의 재생산에 대해 다양하면서 복합적인 견해를 담고 있으며, 각 견해에 따라 추구하는 이상적 방향 또한 제시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각 페미니스트들이 내세우는 여러 견해에 따라 다양한 페미니스트 이론으로 명명되어지고 있어, 이들을 분명히 구분하여 설명하기에는 모호함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양한 페미니스트 이론들의 표출로 말미암아 기존학계의 이론에서 결여되었던 성 또는 성차에 대한 각성을 고취시키게 되었고, 이에 대한 논쟁을 기존학문의 영역 내로 끌어들여 학문적 의제로 다루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주로 남성의 폭력, 성욕, 성차별주의와 이로 인한 사회내의 불평등 구조 및 이의 재생산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페미니스트 철학에서 대표적으로 구분되고 있는 관점을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급진주의적 페미니즘, 맑스주의적 페미니즘, 그리고 사회적 페미니즘 등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Enns, 1992; Kim, 1995). 이 각각의 철학적 관점들을 통해 남성중심의 억압상황에서 나타나는 성불평등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우선,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관점부터 살펴보면, 여성억압의 본질은 엄격히 구분되어진 사회적 성역할과 함께 여성이 남

성보다 지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열등하다 라는 비합리적 편견에 의해 나타난다고 보았다(Kim, 1995). 따라서 자유주의적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도 남성과 같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이성적인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성에게도 남성과 같은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자기성장의 여건이 주어진다면 성적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았다(Choi, 1998). 즉 여성도 남성과 같은 평등한 인간존재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체제내의 개혁 즉 여성권익을 위한 법적 투쟁과 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페미니스트들은 초기에는 주로 여성의 참정권과 재산소유를 위한 투쟁 및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에 초점을 두었으며 오늘날에는 동등한 취업기회와 동일한 임금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Enns, 1992).

두 번째로 급진주의적 페미니즘을 언급할 수 있다. 급진주의적 페미니즘의 관점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으며 모든 역사, 문화, 그리고 사회적 가치체계와 계층구조 전반에 걸쳐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잣대로 이를 보고자 했다(Choi, 1998; Kim, 1995). 다시 말해, 자유주의 페미니즘 관점에서 남녀의 “평등”을 강조했다면 급진주의 페미니즘에서는 남녀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가부장제라는 용어를 통해 남성이 여성을 지배해온 모든 방식들을 설명하려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포르노그래피를 남성주의 문화의 대표 산물로 보았으며 이러한 남성주의 문화가 여성에게 가하는 성적 폭력에 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억압 현상은 이미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남녀의 이분법적 구분에서 나타나며, 모두가 이를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 남성지배적 구도는 개인적 노력이나 사회변혁으로 종식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성적인 것으로부터 여성적인 것을 분리하여 여성적인 것 그 자체(여성의 문화 창조)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여성이 만들어내는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맑스주의적 페미니즘을 세 번째로 언급해 보면, 맑스주의적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억압의 본질을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서 찾고자 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계급억압이 여성억압의 근본이라고 보았다(Choi, 1998; Kim, 1995). 따라서 이들은 급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여성억압의 생물학적 기제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역할에 따른 기회불평등의 기제들에 대한 주장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맑스주의적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여성억압은 계급사회의 불평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의 가치편향으로 나타나게 됨을 예로 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계급사회적 경제논리의 맥락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도 언급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본 여성 억압의 본질은 어느 특정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다양한 요인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Choi, 1998; Enns, 1992). 즉 사회적 페미니즘에서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성차에 근거한 역할을 무시하고 성을 초월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급진주의자와 맑스주의자들의 일면을 모두 조금씩 수용하고 있는데 급진주의자들이 주장한 가부장제를 생물학적 요인에서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퍼져있는 인종주의, 계급주의, 이성에 주의 등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억압기제 속에서 다루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맑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일부 관점 중 노동시장의 자유경제 체도는 엄격한 성적 구조 틀 안에 놓여 있음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그 가치를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교육 및 경제구조의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Enns, 1992).

이상과 같이 위의 4가지 페미니스트의 철학적 관점에서 본 여성억압의 본질은 남성지배의 억압상황에서 여성이 남성에 종속되고, 착취당하며, 대상화되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본질을 통해 체계적인 남성지배가 이루어져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페미니즘의 인식론적 접근

페미니스트들은 기존의 사회과학 연구가 여성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으며 주관성을 무시한 객관성만을 보편타당한 과학적 연구로 받아들였고, 이러한 관점은 서구 백인남성의 주된 사고방식만을 반영한 것으로써 남성적 편견이 지배적이라는 점 등이 페미니스트들이 간파한 현실 문제였다. 따라서 여성의 경험에 가치를 부여하고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왜곡되어 비추어진 여성의 삶을 페미니즘 연구를 통해 재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인식론적 관점에서 페미니스트 연구를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인식론은 누가 식자(knower)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지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그것에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지식이론 (Leonard, 1994; Sigsworth, 1995)임과 동시에 방법론을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Campbell & Bunting, 1991). 따라서 인식론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주관적 지식이 지식체일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주관적 지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여성을 식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론적 이슈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은 백인 남성의 사고가 중심이 된 과학이란 개념에 대한 의문을 통해, 객관성과 주관성 모두가 과학적 테두리 안에 모두가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여성으로서의 경험이 지식의 정당한 구성요소가 될 수 있으며 그 여성은 식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Campbell &

Bunting, 1991). 다시 말해, 여성도 그들 자신의 삶의 전문가이므로 이들의 주관적 지식도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론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페미니스트 연구는 페미니스트 경험주의 연구(feminist empiricism), 페미니스트 관점 연구(feminist standpoint),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적 페미니즘(postmodern feminism) 연구 등 3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Harding, 1987).

첫째로 페미니스트 경험주의 연구에서는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관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연구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차, 종족, 계층간의 편견을 떠나 좀더 객관적인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Wuest, 1995). 페미니스트 경험론자들은 과학적 연구방법을 엄밀히 따름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편견을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여성운동을 통해 사회적 평등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으며,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사회적 편견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방편으로 여성이 연구에 활발히 참여하기를 권고하고 있다(Harding, 1987).

전통적인 경험주의와 페미니스트 경험주의의 차이점에 관해 Harding(1987)은 연구자의 사회적 정체성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즉 전통적 경험주의자들은 가설검증을 통해 연구자의 사회적 편견이 제거될 수 있다고 본 반면, 페미니스트 경험론자들은 그러한 측정 잣대 또한 남성의 시각에 의해 규정되어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남성적 시각이 배제된 과학적 방법 그 자체로서 엄격성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가치중립성과 객관성을 엄격히 추구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Harding, 1987). 그러나 Olesen(1994)는 여성의 주관적 삶이 객관적이며 가치중립적일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들의 시각으로 시도된 연구가 과연 정확성과 신빙성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음으로 페미니스트 관점(feminist standpoint)을 들 수 있다. 페미니즘 연구의 대부분이 페미니스트 관점에 의해 이루어져왔고 급진주의적 페미니즘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 (Enns, 1992). 페미니스트 관점에서는 소위 과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객관성과 합리성 그리고 탈맥락적 가설로 도출된 진리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여성의 견해 그 자체만으로 특별한 가치가 있는 어떤 것으로 보았다(Olesen, 1994). 이는 주로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여성의 삶과 경험에 대해 심층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페미니스트 관점에서의 앎은 식자(knower)의 사회적 맥락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고 있으며, 문화 속에 배어있는 종족, 성차, 그리고 계층간에 나타나는 여러 여성적 경험들을 반영하고자 했다(Harding, 1987; Wuest, 1995). 따라서 페미니스트 관점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험을 통해 여성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사회 가치체계나 계층구조 속에 숨어있는 여성의 가치를 찾아내고자 함과 동시에 변화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Harding 1991). 그러나 Olesen(1994)은 이에 대하여 여성의 본질을 너무 여성의 경험에 국한시키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모더니즘적 페미니스트 연구에서는 사회적 페미니즘 관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앎이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세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Enns, 1992). 다시 말해 페미니스트 관점에서처럼 경험 속에 내재되어있는 의미 속에서 진리를 찾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사회구조, 그리고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는 현실을 왜곡됨 없이 재현해보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기존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여 재현하고자하는 페미니스트 인식론이 너무 계몽주의적 틀 속에 자리 잡혀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페미니스트들은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하였으므로 그 자체가 이성과 합리성 및 객관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계몽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탈계몽주의적 관점을 지니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적 관점에서는 페미니즘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접근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Harding(1991)은 여성의 신념체계가 제대로 반영되어지지 않은 현실적 사회신념체계에 페미니스트 연구를 통해 이 왜곡된 부분이 제대로 현실에 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스트모더니즘적 페미니스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 1> 페미니즘의 인식론적 측면에서의 분류

차 이 점	페미니스트 경험주의 (feminist empiricism)	페미니스트 관점 (feminist standpoint)	포스트모더니즘적 페미니즘 (postmodern feminism)
철학적 배경	자유주의 페미니즘	급진주의적 페미니즘	사회적 페미니즘, 급진주의, 맑스주의 페미니즘
본 질	합리적이며 이성적 존재로서의 여.남 평등	여.남의 본태적 차이 강조	성차적 역할 무시, 성 초월적 시각.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중시
해 결 책	여성 권익과 평등 구현을 위한 법적체제의 개혁	남성과 차별화된 여성의 문화 창조 및 가치 부여	종족, 계층 그리고 성차를 초월한 교육, 노동, 경제구조의 재구조화
연구 초점	객관적 가치중립적 진리 추구	주관적 경험 중시	사회적 관계, 구조, 맥락 등 텍스트 중시

기존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입장에서 페미니스트 연구에 제기하고 있는 또 다른 의문은 여성의 삶이 마치 통합되어진 하나로 비춰진다는 것이다. 즉 다양한 삶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인데, Harding (1991)은 이에 대해 주류문화의 여성의 삶에 대표성을 부여하는 것은 페미니스트 정치운동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라고 논박하고 있다. 즉 덜 왜곡된 현실을 재현하여 이를 정치적 실천으로 옮기는데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적 관점의 페미니즘 연구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Olesen(1994)은 이 포스트모더니즘적 페미니스트 연구가 너무 텍스트만을 중요시 여기며 여성으로서 겪는 억압적 경험에 따른 행위의 진행 양상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억압적 경험을 겪음으로써 파생되는 감정의 양상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위던(Kim, 2003 재인용) 또한 여성이 체험한 현실의 의미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주관적 여성의 경험은 중요하며, 여성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이해함으로써 경험 속에 내포되어있는 사회적 권력구조화에 대해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페미니스트 연구방법론

페미니스트들은 흔히 페미니스트 연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여성으로서 여성 자신에 대해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기 위해 페미니스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Olesen, 1994). 여성에 관해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 중요성과 가치를 부여하여야 하며, 여성의 삶(경험)과 사상, 그리고 욕구 등에 대해 타당성을 부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성을 억압하는 모든 현실적, 사회구조적, 그리고 대인관계적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현실을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Hall & Stevens, 1991). 따라서 페미니스트들이 페미니스트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하는 것은 여성 스스로의 각성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Hall & Stevens, 1991).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페미니스트 연구에는 특정한 연구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여성이 처한 세계를 되돌아 짚어보고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도록 연구의 방향을 잡아가면서 해결책도 함께 제시해주고자 하는 것이 페미니스트 연구라고 할 수 있다(King, 1994).

이에 대한 좀더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연구방법론은 무엇이고 연구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Harding(1987)에 따르면 연구방법론은 연구 전반을 이끌기 위한 철학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패턴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이론이라고 하였다. 좀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연구자가 어떻게 연구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정

당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실제로 활용되었는지, 그리고 이 연구방법이 지니고 있는 함축성은 무엇인지 등을 총망라하여 방법론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King, 1994). 따라서 King(1994)은 페미니스트 연구를 위한 오직 하나의 연구방법론은 없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페미니즘 이론개발을 위하여 연구방법론에 있어 최대한의 유동성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Reinharz(1992) 또한 인간의 경험은 다양하고 그들이 내는 목소리 또한 다양하므로 다양한 연구방법론이 페미니스트 연구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그녀는 페미니스트 연구방법론에 있어 대략의 윤곽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페미니스트 연구방법론이라 함은 페미니스트나 그와 유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진행되어진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이며, 페미니즘과 관련된 연구만을 수록하는 저널에서 기재된 논문에 사용되어진 방법, 그리고 페미니스트 연구를 지원하는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방법이라는 대략적인 틀을 언급하고 있다. 더 나아가, Duffy(Parker & Mcfarlane, 1991 재인용)는 위에서 언급한 사안 외에 연구결과에 페미니스트 또는 페미니즘이란 용어의 사용, 페미니즘 문헌 사용, 그리고 성중립적 용어 사용 등을 더 언급해 줌으로써 페미니스트 연구의 분명한 색깔을 부여해 주고 있다.

한편, Hall & Stevens(1991) 그리고 Harding(1987)은 페미니스트 연구방법론에 있어 좀더 세부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우선 페미니즘 연구는 여성의 경험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하며, 논리 실증주의적 접근을 통해 여성의 경험이 진리라는 타당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Reinharz(1992)는 페미니스트 연구가 표본통계 연구나 실험연구 등과 같은 양적연구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질적연구인 구두사(oral history), 횡문화연구, 문화기술지, 사례연구, 참여연구, 현상학, 근거이론, 그리고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 질적, 양적연구 모두 포함)에 의해서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cker, Barry와 Essensvald(1991) 또한 자유로운 연구방법적 접근의 필요성과 함께 질적연구의 패러다임 속에서 페미니즘 연구가 전개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질적연구 패러다임 속에서의 페미니스트 연구는 현상에 대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역사 등과의 관련성이 연구, 설계, 진행 그리고 해석적 측면에서 잘 나타나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질문은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의 관심사항을 잘 반영할 수 있어야 함을 우선 강조하고 있다. 질적연구에 있어서도 연구질문은 연구과정의 전반을 이끄는 중심축이 되고 있는데(Maxwell, 1996), 페미니스트 연구에 있어서도 이는 예외일 수 없다. 다음으로 페미니스트 연구방법론에 있어서 중요시해야 할 사항은 연구자도 연구를 이끄는 하나의 중요한 도

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Oakely, 1981). 다시 말해 연구자의 관심 배경, 흥미, 가정 그리고 해석은 연구진행 과정 동안 분명히 조사되어야 한다. 이는 또한 연구진행 과정 중 참가자와의 상호 호혜적 수평관계 형성을 위해서도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King(1994)은 페미니스트 연구가 여성의 경험을 반추해보고, 비판적으로 조사해보며, 그리고 분석적으로 표면화시키기 위해서는 연구자와 참여자 사이의 상호작용적 공감대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여성의 삶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페미니스트 연구는 여성을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연구방법론은 이 점에 초점을 두어 연구결과가 여성을 위한 답 즉 실천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여성이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의도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연구방법(method)은 자료수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기술로 참가자 경청, 참가자 관찰 그리고 과거력 조사 등과 같은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고 언급하고 있다(Harding, 1987). 즉 연구방법론에서처럼 연구진반을 비취주는 틀을 제시하거나 연구가설을 유도하고 이끄는 중심적 역할이라기보다 자료수집 방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페미니스트 연구에서 시도되어진 방법으로는 현장연구(fieldwork), 인터뷰 그리고 관찰과 같은 방법이 주로 이용되어져오고 있다(Hurst, 1999; Pursley-Crotteau & Stern, 1996; Strang, 2001; Yoon, 2002). 이중 인터뷰 방법은 기존에 주로 사용되어지던 연구방법과 페미니즘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방법 사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존의 양적연구에서 인터뷰는 인터뷰자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강조하였으므로 연구참여자와 상호 호혜적 관계에서 자료수집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정보 수집자의 입장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흐름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인터뷰에서는 남성중심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여성이 어떻게 위치해 왔는지 파악하고 그들의 경험을 심도 있게 반영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와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수평적 관계유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Harding, 1987; Sigworth, 1995).

한편, 일각에서는 페미니즘 연구가 가치중립적이지 않음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페미니스트 관점론자들은 연구자의 가치가 연구진행 매 단계마다 작용하게 되므로 어느 연구든지 가치중립적일 수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어서 질적연구방법과 일반적으로 맥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페미니즘 연구에 있어서 연구의 타당성은 연구합리성, 결과 그리고 자료수집과 관계된 모든 행위에 대한 기록을 통해 연구타당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Hall & Stevens, 1991; Sigworth, 1995). 즉 연구의 엄격성은 신뢰성이나 정확성으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전반에 걸쳐

얼마나 그 과정을 잘 반영해 주고 있는가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얼마나 정확히 여성의 삶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연구결과를 연구참여자와 서로 공유함으로써 연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 페미니즘 연구의 엄격성 및 정확성을 위해 Hall & Stevens(1999)는 성찰(reflectivity), 신뢰성(credibility), 라포(rapport), 일관성(coherence), 복잡성(complexity), 합의(consensus), 관계성(relevance), 정직성과 상호관계성(honesty & mutuality), 명명하기(naming), 그리고 연구의 총체적 합리성(rationality) 등의 10가지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연구참여자와 공유함으로써 연구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는 기준으로 삼았고 이를 상호주관성이라 하였다. 뿐만 아니라 논의 부분에서는 여성참여자의 변화를 유도하는 실천적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어 타 연구에 비해 상당히 개혁적이며 실천적 연구라 할 수 있다.

페미니즘과 질적간호연구

페미니스트 간호연구

페미니스트 연구결과가 양적연구 결과이건 질적연구 결과이건 간에 간호정책과 실무의 발전과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간호지식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 관련 연구들은 남성중심적 사고체계에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예를 들면, Im과 Chee(2001)는 암 통증에 관한 논문 82편의 분석을 통해 이 논문들 속에 나타난 서구 백인 남성 중심 사고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며, 여성 연구참여자의 관점이나 경험이 이 연구들 속에 충분히 고려되어있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82편의 논문에서 주로 사용되어진 이론적 틀은 생의학적 모델이 주를 이루었으며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도 여러 인종 간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성이 제한되어져 있음을 발견하였다. 게다가 연구하고자하는 현상에 대한 환경적, 맥락적 요소 그리고 상황적 요소 등이 배제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수집에 있어서도 참여자와 연구자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Im과 Chee(2001)는 여성의 경험이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인식되어야 하며, 남성이나 특정 인종의 시각으로만 현상을 보았을 때 현실이 왜곡되어 비춰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를 참여자와 공유함으로써 참여자의 가치를 존중함과 동시에 연구참여자를 위한 연구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속적인 질적연구의 분발과 함께 양적연구만이 아닌 혼용된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해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페미니스트 연

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또한 Im(2000)은 1980-1999년 사이 발표된 한국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을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내용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남성중심의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이슈 즉 여성 질병과 관련된 사항이 주류층인 남성과 관련된 질병에 비해 연구적 가치로 이어지지 않거나 정확하게 여성의 목소리가 연구에 반영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페미니스트 연구를 통해 여성의 삶과 경험에 힘을 실어 줘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건강관련 현상들이 얼마나 의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하여 다루어져 왔으며 간호지식적 접근 또한 생의학적 모델에 기초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조작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지식만을 우선시 하였는가(Bungay & Keddy, 1996; Sigsworth, 1995) 잘 반영하여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인간 현상에 대한 실증주의적 견해에서 다루는 이 생의학적 모델은 인간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상황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인간을 통제 가능한 특성을 지닌 하나의 집합체로 단정짓고 있다는 것이다(Leonard, 1994). 다시 말해, 양적으로 측정가능한 과학적 지식만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작이나 측정가능하지 않은 인간의 주관적 경험이나, 삶 또는 인간이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간호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돌봄(Benner & Wrubel, 1989; Leininger, 1985)이다. 돌봄은 양적으로 수량화시키거나 객관화시켜 측정하기에는 많은 미흡함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계에서는 1980년대 초까지 양적연구 위주의 간호지식체 개발 접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Leininger(1985)는 그 이유를 타학문의 무비판적 수용, 양적연구 위주의 학제 프로그램, 양적연구만을 선호하는 전반적인 간호계의 연구동향, 그리고 양적연구에 편중된 연구비 지원이 간호학에서 양적연구가 성행하게 된 원인으로 들고 있다. 여기서 Leininger는 양적연구 위주의 흐름이 비단 학계자체(학제 프로그램)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연구비지원) 또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80년대 초 중반부터 간호계에서도 질적연구가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Benoliel, 1996; Chenitz & Swanson, 1986). 이는 과학이란 인간이 어떻게 사회와 상호작용하면서 기능해가고 있는지 객관적 측면(경험적 관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주관적 측면(심미적 관점)에서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질적연구는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인간의 삶, 행위적 패턴 그리고 관점을 묘사하고 그에 따른 의미를 발견해 감으로써 특정 현상에 대한 깊은 통

찰력을 얻을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Jan, 1996; Leininger, 1985). 질적연구는 또한 전인주의적 개념 틀 속에서 깊이 있고 풍부한, 그러면서도 다양한 간호현상을 표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고(Morse, 1991) 이를 통해 얻어진 통찰력은 간호 실무와 간호지식체 개발을 위한 이론개발 과정을 이끌어 주고 있다(Schartz-Barcott & Kim, 2000). 또한 질적연구는 다양한 개개인의 개인적 문화와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역사 등 다양한 측면까지 접근하여 인간 행위 속에 내재되어있는 독특성, 공통성 그리고 다양성을 찾아가는데 그 가치가 있다(Stake, 1995). 이러한 질적연구는 주로 개개인의 경험 속에 배어있는 의미들을 그들이 사용하는 일상용어를 통해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주관적 진실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질적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연구방법으로는 문화기술지, 현상학, 근거이론, 실천연구, 사례연구, 역사연구 등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어지고 발표되고 있다(Streubert & Carpenter, 1999). 한국에서는 주로 현상학 및 근거이론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대한간호학회지에 Kim 등(2002)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989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간호학회지를 통해 발표된 질적연구는 107편으로 전체 논문의 7.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중 현상학이 62편(4.5%), 근거이론 22편(1.6%), 문화기술지 13편(0.9%), 그리고 기타8편(0.6%) 등으로 나타났다. 비록 질적연구가 양적연구에 비해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90년대 초반부터 부단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질적연구방법들이 내포하고 있는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자는 다양한 연구방법(심층인터뷰, 관찰, 녹취, 현장노트, 일지 등)등으로 얻어진 자료를 통해 연구하고자하는 현상에 대한 다각적인 현실을 반영해 줄 수 있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을 통해 얻은 폭넓고 진솔한 진술내용 등을 통해 현상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질적연구는 사실에 대한 측정이라기보다 현상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수량적 결과가 아닌 깊이 있는 서사(narrative)를 통해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지식체의 개발은 경험주의적 관점에서 수량적으로 증명될 수 있고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관점에 초점을 두어 형성되어진 지식을 통해서도 기록되어짐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남성중심의 생의학적 모델의 시각 안에서 주로 비추어진 간호학은 이제 질적연구라는 다양한 연구방법들을 통해 그 폭을 넓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학에서의 질적연구는 아직도 여성을 “위한” 연구라기보다는 여성(간호학자)의 여성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성인 연구자가 여성인 연구참여자로부터 그들

의 경험을 이끌어내어 표면화시킴으로써 그들 경험 자체에 가치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페미니즘 연구와 상응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여성참여자에게 그들 경험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실천적 행동으로 돌입하게끔 하는 방안, 즉 여성을 위한 구체적인 답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연구의 초점을 둔 것이 여성이기는 하지만, 연구자는 중성적 시각에서 여성의 경험을 다루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질적연구 결과가 암묵적으로는 여성을 위한 지식체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함의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을 사회구조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명백한 목적을 가진 페미니스트 연구를 통하여 간호와 돌봄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여성의 경험을 보다 가치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억압적인 사회적 구조와 상황을 더 잘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페미니스트 근거이론

근거이론과 페미니스트 연구는 질적연구의 패러다임 속에서 그 방법론적 접근에 있어서 많은 부분 상응 되는 일면을 가지고 있다. 우선 근거이론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 봄으로써 연구참여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고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있다. 페미니스트 관점 또한 참여자의 억압적 실재를 역사, 문화, 사회적 맥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어 근거이론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거이론에서 사회 경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해석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지식체 구성의 한 자원으로 반영하고 있는 점과, 페미니스트 연구에서 여성의 다양한 경험에 가치를 부여하여 주고 그 경험을 하나의 지식으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이 연구의 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어 연구자도 연구의 한 도구로 인식되어진다는 점도 유사성 측면에서 간과될 수 없는 요소이다.

연구자와 참여자와의 관계형성에 있어서도 근거이론과 페미니스트 연구에서 모두 수평적인 평등관계를 지향하고 있어 관계적 상호 신뢰는 물론 심층자료를 얻기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근거이론에서는 주로 수평적 관계이면서 치료적 중재의 위험성에 대해 다소 경계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Chenitz & Swanson, 1986), 페미니즘 연구에서는 참여자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개인적 만족이 주어질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Oakely, 1981). 즉 연구사안에 대한 서로간의 상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만 지속적인 관계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근거

이론이나 페미니즘 연구 모두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주변인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근거이론과 페미니즘 연구가 지니고 있는 차이점에 대해 언급해 보면 페미니즘 연구에서는 여성을 위한, 여성에 대한 연구, 여성의 연구라는 특정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Reinharz, 1992). 그러나 근거이론에서는 여성의 연구는 있어도 여성을 위해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고 있다. 또한 Glaser와 Strauss에 의해 다루어지기 시작한 간호학에서의 근거이론은 간호라는 내적요소에 편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Keddy, Sims & Stern, 1996). Benoliel (1996) 또한 간호연구자들이 간호사와 환자와의 관계 등 너무 좁은 반경에서만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 좀더 넓게 기관이나 지역사회 또는 사회적 맥락에서 비추어본 상호작용적 측면에서는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페미니즘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경험에 가치를 부여해주고, 힘을 실어 주어, 여성을 위한 변화를 유도하는 실천방안을 제시하며, 궁극적으로 이 실천방안이 정치적 행동으로 이어지게 해주고 있어 내적 영역의 반경을 벗어난 개혁적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은 이 두 연구방법을 접목시킴으로써 서로가 안고 있는 제한점을 상호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잇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Hurst(1999)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페미니즘 관점에서 근거이론적 방법론을 이용한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경험이 현저하게 많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초점을 둔 연구가 미비함을 지적하며 여성에 초점을 두어 여성의 관점에서 우울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구하고자 하였다. 이는 페미니즘 연구가 추구하는 여성을 위한 연구와 근거이론이 추구하는 실제 참여자가 사회적 맥락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얻어진 주관적 세계를 바탕으로 한 이론 구축이라는 두 연구분야의 접목을 추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Pursley-Cortteau와 Stern(1996)의 연구 또한 두 연구간에 나타나고 있는 제한점을 상호보완해 준 예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이 안고 있는 범위적 제한점에 페미니즘 연구가 지닌 실천적 강점을 접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약을 복용하고 있는 산전 여성을 대상으로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진 이 연구는 근거이론 방법을 통해 도출된 태아, 마약복용 그리고 앞으로의 삶 등의 핵심 범주를 통해 의료서비스계의 변화, 임상적 중재 그리고 정책 입안자의 정치적 행동 유도라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어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다루어진 연구가 간호지식체 개발은 물론 간호정책 및 실무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페미니스트 문화기술지

문화기술지 또한 질적연구의 패러다임 속에서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는 연구방법론이다. 문화기술지는 문화에 초점을 두고 그 문화집단의 생활방식과 패턴을 연구하는 분야로서, 간호학에서는 문화중심 간호연구(ethnonursing)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Leininger, 1985). 문화기술지는 특정 문화(다문화와 동질문화 속의 하부문화 모두 포함) 속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현실을 기술함으로써 다양한 인간의 삶을 심층적으로 묘사해 줄 수 있으며, 이러한 묘사를 통해 다양한 사회를 더 잘 이해하고, 이로서 인간행위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Spradley, 1980). 이 점을 간호학적 측면에서 부각시켜보면 환자의 건강이나 질병 관련 행위를 관찰하고 이해함에 있어 그 환자가 속한 다양한 문화적 현실을 조사해 봄으로써 환자의 시각에서 그들의 행동, 신념, 관점 그리고 언어를 이해함은 물론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간호사나 의료인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문화로 환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문화적 기준으로 환자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다(Streubert & Carpenter, 1999). 따라서 그 문화에 뿌리를 둔 여성의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다는 점은 페미니스트 연구와 부합되는 일면이다. 그러나 일반적 질적간호연구가 안고 있는 제한점인 실천적 대안의 제시 부족은 페미니스트 연구의 접목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대목이 되고 있다. 즉 페미니스트 연구에 있어서 여성억압의 문화적 특수성을 그 문화에 속한 여성의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그 억압기제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고 그 문화적 맥락에 맞는 여성을 위한 실천적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Yoon, 2002).

한편, 기존의 인류학이나 사회학에서 진행된 문화기술지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수평적 관계형성에 있어서 다소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Yoon, 2002). 이는 연구결과를 연구참여자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여성을 위한 연구결과를 도출해 내고자 했던 페미니스트 연구와는 달리, 문화기술지에서는 참여자와의 공유적 측면이 다소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Yoon(2002)은 페미니스트 문화기술지에 있어서 참여자와 함께하며 공유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류학자인 Yoon(1996)은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문화기술적 연구를 시도하였는데, 이는 두 연구방법을 접목시킴으로써 서로가 안고 있는 제한점을 상호 보완해 줄 수 있는 한 예를 잘 보여주고 있다. Yoon은 도시 중산층 전업주부의 일상생활과 모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를 통하여 모성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한국사회의 도시 중산층 전업주부의 일상생활을 구조화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 사회의 모성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맥락을 살펴면서 모성을 한국의 산업화와 역사적 특수성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문화적, 역사적 산물로서 인식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더 나아가 모성 이데올로기가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한 억압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모성 정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간호학에서는 아직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접근된 문화기술적 연구가 표면 위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특정 문화 속의 여성의 간호와 돌봄행위 혹은 건강행위를 그 문화에 뿌리를 둔 여성의 시각에서 조명하면서 문화적 특수성과 보편성을 찾아내는 것은 페미니스트 문화기술적 연구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페미니즘적 접근과 근거이론 및 문화기술지의 접목은 간호라는 지식체 속에서 이들 분야가 어떻게 상호보완될 수 있는가를 제시해 주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간호 지식체 개발에 이바지 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결론

지난 몇 세기 동안 간호는 의료적 관점 속에 묻혀 그 정당한 가치를 사회 속에 인식시켜 나가는데 미흡하였다. 이는 비단 사회적 인식 속에서 만이 아니라 간호제공 주체자 내부에서도 간호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 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스트 연구를 통해 여성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고, 여성이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여성이 처한 현실에 대해 인식하게 해 줌으로써, 여성을 위한 변화를 모색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간호가 처한 현실 또한 예외일 수 없다. 간호제공자가 알고 있는 간호전반에 대한 사고보다 더 간호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인식시켜 발전해 나가고자 함은 페미니스트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이 글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페미니스트 연구와 질적연구의 상호보완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페미니스트 연구가 간호에 부여하는 의미를 짚어볼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간호연구방법으로 널리 활용될 가치가 있으며, 특히 페미니스트 연구와 질적연구가 접목됨으로써 간호지식체 개발에 이바지 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간호지식체는 비단 양적 접근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질적 접근에 의해 도출된 주관적 경험에 의해서도 그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페미니즘을 도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남성 중심”이 아닌 “인간중심”의 상호작용적 전인간호 제공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 본다.

References

- Acker, J., Barry., & Essevald, J. (1991). Objectivity and truth: problems in doing feminist research. In M. Fonow & J. Cook. (Eds.), *Beyond methodology: feminist scholarship as lived research*.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Benner, P., & Wrubel, J. (1989). *The primacy of caring: Stress and coping in health and illness*. Reading MA: Addison-Wesley.
- Benoliel, J. Q. (1996). Grounded theory and nursing knowledge. *Qualitative Health Research* 6(3), 406-428.
- Bungay, V., & Keddy, B. C. (1996). Experiential analysis as a feminist methodology for health professional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6(3), 442-452.
- Campbell, J., & Bunting, S. (1991). Voices and paradigms: Perspectives on critical and feminist theory in nursing. *Adv Nurs Sci*, 13(3), 1-15.
- Chafetz, L., & Barnes, L. (1989). Issues in psychiatric caregiving.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3(2), 61-68.
- Chenitz, W. C., & Swanson, J. M. (1986). *From practice to grounded theory: Qualitative research in nursing*. California: Addison-Wesley Publishing.
- Choi, S. K. (1998). Feminism and anti-feminism in America.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cademic Conference in Autumn*, 369-380.
- Enns, C. Z. (1992). Toward integrating feminist psychotherapy and feminist philosophy.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3(6), 453-466.
- Gilligan, C. (1993).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uberman, N. (1988). The family, women and caring: Who cares for the carers? *Resources for Feminist Research*, 17, 37-40.
- Hall, J. M., & Stevens, P. (1991). Rigor in feminist research. *Adv Nurs Sci*, 13(3), 16-29.
- Hardng, S. (1987). *Feminism methodology*.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 Harding, S. (1991). *Whose science? Whose knowledge? Thinking from women's live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Hurst, S. A. (1999). Legacy of betrayal: A grounded theory of becoming demoralized from the perspective of women who have been depressed.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40(2), 179-191.
- Im, E. O., & Chee, W. (2001). A feminist critique of research on cancer pain.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3(7), 726-752.
- Im, E. O. (2000). A feminist critique of breast cancer research among Korean women. *Western Journal of Nursing Research*, 22(5), 551-570.
- Jan, R. (1996). A sampling strategy for qualitative research. *Nurs Rea*, 3 (4), 52-68
- Jeon, B. H. (1998). The main agenda of feminism and anti-feminism in German feminist movement.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cademic Conference in Autumn*, 1-24.
- Keddy, B., Sims, S., & Stern, P. N. (1996). Grounded Theory as feminist methodolog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3(3), 448-453.
- Kim, C. M. (2001). *The coping process of family caregivers for demented elderly at home*.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m, K. H. (2002). National and women policies. In Korean women policies. (2002). *Korean Women Policies*. MIREINYRUK Institution.
- Kim, M. H. (2003). *Postmodernism and culture theory*. HANNARE.
- Kim, S. (1998). The effect of community-based mental health nursing program on family care provider's burden. *Nursing Science*, 10(1), 19-30.
- Kim, S. J., Kim, K. B., Yi, M. S., Lee, K. J., Ahn, Y. H., Kim, H. S., Park, Y. J., Koh, M. S., & Sohng, K. Y. (2002). The trends of nursing research in the journals of seven branches of the Korean academy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1), 114-134.
- Kim, U. K. (1998). Feminism in France and political resistanc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cademic Conference in Autumn*, 405-419.
- Kim, U. S. (1995). Culture research and feminism- feminist Marxism and culture research. *Journal of Korean society and Journalism*, 5, 90-115.
- King, K. E. (1994). Method and methodology in feminist research: What is the differenc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 19-22.
- Lee, K. H. (1996). Korean women's health and culture. *Academic Symposium at Ewha Womans University*, 11(1), 137-145.
- Lee, Y. J. (2000). Feminism as a alternative paradigm: Its possibility and dilemma. *Korean Women's Studies*, 16(1), 5-36.
- Leininger, M. M. (1985). Nature, rational, and importance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nursing. In M. M. Leininger (Eds.),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nursing*. New York: Grune & Stratton.
- Leonard, V. W. (1994). A Heideggerian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on the concept of person. In P. Benner (Eds.), *Interpretive Phenomenology: embodiment, caring, and ethics in health and illnes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Maxwell, J. A. (1996). *Qualitative research design: An interactive approach*. Thousand Oaks: SAGE: International Educational and Professional Publisher.
- Milliken, P. J. (2001). Disfranchised mothers: Caring for an adult child with schizophrenia.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22, 149-166.
- Morse, J. M. (1991). *Qualitative nursing research: A contemporary dialogue*. London: SAGE Publications.
- Oakley, A. (1981). Interviewing women: a contradiction in terms. In H. Roberts. (Eds.), *Doing feminist research*.

-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Olesen, V. (1994). Feminisms and models of qualitative research. In K. D. Norman, N. K. Denzin & S. L. Yvonna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Park, Y. S. (1995). Feminist approach in nursing. *Nursing Inquiry*, 4(10) 129-142.
- Park, C. S. (2002). Feminism in family research.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Academic Conference in Spring*, 1-16.
- Parker, B., & McFarlane, J. (1991). Feminist theory and nursing: An empowerment model for research. *Adv Nurs Sci*, 13(3), 59-67.
- Pursely-Cotteau, S., & Stern, P. N. (1996). Creating a new life: Dimensions of temperance in perinatal cocaine crack users. *Qualitative Health Research*, 6(3), 350-367.
- Spradley, J. P.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on.
- Reinharz, S. (1992). *Feminist methods in social researc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ichardson, B. (1998). Feminism and backlash in Canada.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cademic Conference in Autumn*, 367-368.
- Sheyette, A. (1990). The oppression of caring: Women caregivers of relatives with mental illness. *Affilia*, 5(1), 32-48.
- Sigsworth, J. (1995). Feminist research: Its relevance to nurs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2(5), 896-899.
- Strang, V. (2001). Family caregiver respite and leisure: a feminist perspective. *Scand J Caring Sci*, 15(1), 74-81.
- Streubert, H. J., & Carpenter, D. R. (1999). *Qualitative research in nursing*. Philadelphia: Lippincott.
-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London: SAGE Publications.
- Swartz-Barcott, D., & Kim, H. S. (2000). An expansion and elaboration of the Hybrid Model of concept development. In B. Rodger & K. Knafll (Eds.), *Concept development in nursing: foundations, techniques and applications*. Philadelphia: W.B. Saunders.
- Wuest, J. (1995). Feminist grounded theory: An exploration of the congruency and tensions between two traditions in knowledge discovery. *Qualitative Health Research*, 5(1), 125-137.
- Yoon, T. L. (1996). The meaning of everyday life of urban middle-class housewives and ideology of motherhood. *Korean Women's Studies*, 12(2), 79-117.
- Yoon, T. L. (2002).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nd gender: Toward the establishment of feminist ethnography. *Korean Women's Studies*, 18(2), 201-229.

Feminism and Qualitative Nursing Research

Yi, Myungsun¹⁾ · Yih, Bong-Sook²⁾

1)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2) Doctoral Student,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describe feminism and to propose the integration of a feminist method into qualitative nursing methodology in order to expand the body of nursing knowledge. **Method:** The world view of feminism including philosophy, epistemology and methodology was outlined, and a feminist grounded theory and feminist ethnography were suggested as a way of strengthening nursing research methodology using literature review. **Results:** Four different philosophical perspectives of feminism, that is, liberal feminism, radical feminism, Marxist feminism, and social feminism were described. Also epistemological perspectives including feminist empiricism, feminist standpoint, and postmodern feminism, were explained and were related to the methodology and methods of feminism. To enhance the strengths of nursing research within the feminist perspectives, feminist grounded theory and feminist ethnography were exemplified in the paradigm of qualitative nursing research.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ed that incorporation of feminist approaches within nursing is a valuable attempt to expand the body of nursing knowledge and to enhance the quality of nursing care services by rectifying male-oriented knowledge and by empowering women in the care of other people as well as themselves.

Key words : Feminism, Qualitative Research, Women's Right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i, Myungsun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28 Yongon-Dong Chongno-Gu, Seoul 110-799, Korea

Tel: +82-2-740-8829 Fax: +82-2-765-4103 Email: donam@snu.ac.kr